

## 무주출신 태권소녀가 해냈다!

정다인 선수 2018 태권도원 경연대회 마스터즈 등극 ... 품새, 격파, 겨루기서 탁월한 실력 뽐내며 1위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원년 멤버인 정다인 선수(한국체육대학 2년)가 지난 10일과 11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2018 태권도원 경연대회(주최·주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마스터즈 여자부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마스터즈 부문은 품새와 격파, 겨루기 3종목 경기 결과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리는 것으로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정다인 선수는 이번 대회 대학·일반부에 참가해 월등한 실력으로 1등(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1000만원)을 차지했다.

대회 관계자는 "무주출신 선수가 태권도원 대회 우승을 차지해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정다인 선수는 품새, 겨루기, 격파 모든 종목에서 고른 기량과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시작한 정다인 선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무주군학생태권도시범단 활동을 하며 동아대 총장배 공인 품새 개인 1위, 아시아청소년태권도품새대회 대표 선발전 2위, 용인대 총장배 시범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왔으며 2017년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입학해서는 춘계대학연맹 팀 대학 1위, 추계대학연맹 자유품새복식 2위, 세계태권도한마당 시니어 개인 종합격파부 3위, 대통령기 자유품새 단체전에서 1위를 거머쥐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정다인 선수(한국체육대학 2년)가 2018 태권도원 경연대회에서 마스터즈 여자부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정다인 선수는 "다른 대회보다도 고향 무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영광"이라며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태권도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07년 무주군학생태권도시

범단을 창단해 훈련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태권도 전문 인재양성과 태권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지금도 대규모 국제대회와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시범을 선보이며 무주와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 전주대, '글로벌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 어울림 한마당 개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최근 대학 희망홀에서 국제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주대 호스트패밀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호스트패밀리는 전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가정을 연결해 유학생의 초기 정착과 학업을 돕는다. 중국, 베트남 유학생 등 500여 명의 국제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연과 전시, 드론 날리기, 태권도 시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제학생과 내국인 재학생,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베트남 유학생 잔타이바오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무엇보다 한국인 학생, 이웃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글로벌 친화적 지역문화 육성을 내걸고 우리 대학이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고 순환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타국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한국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젊다, 나는 살아있다!'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 성료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최근 대학 희망홀에서 '젊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주제로 전주대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는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학업의 문에 다시 들어선 성인 학습자들이 1년 동안 배우고 노력한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평생교육원생들은 라인댄스와 음악, 시낭송, 난타 등 각자의 숨은 끼와 열정을 지역주민들에게 마음껏 뽐냈다. O Sole mio(오, 나의태양)와 Nella Fantasia(넬라판타지아) 성악 등 수준 높은 공연도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드림커피, 전문인적성검사, 마술버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올해로 4회째로 접어드는 전주대 평생교육원 한마당 축제는 매년 5,0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는 J호스트패밀리 데이 행사가 같이 진행되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글로벌시티즌십 향상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날 양병선 부총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멋진 공연을 통해 우리의 배움이 향상되고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이 하나가 되고 지역민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문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산림사업법인 (유)아성 장수군에 성금 기탁

산림사업법인 (유)아성(대표 서범석)은 13일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탁해주신 서범석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탁된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참여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은 최근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절기를 앞두고 온정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읍시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과 단풍미인씨름단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내장상동과 시기동의 저소득가구 2세대에 연탄 1,400장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병주 선수는 "그동안 단풍미인씨름단이 좋은 성적은 거둔 것은 정읍시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 10월 정읍체육관에서 열린 제90회 전국체전에서 5개 체급에서 메달(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1월 창단한 이후 올해에만 각종 대회에서 6번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둬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가00016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주)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02-3896	고창지사 563-698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완산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02-0965	정읍지사 538-30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요지지사 010-8845-9855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